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한 민간사진기록 수집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quisition Methods of Private Photographs for The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신지원(Jiwon Shin)¹, 최상희(Sanghee Choi)²

E-mail: angela5534@naver.com, shchoi@cu.ac.kr



¹ 제 1저자 대구미술관 기록물관리전문가
²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1-10-20

최초심사 2021-10-22

게재확정 2021-11-13

ORCID

Jiwon Shin
https://orcid.org/0000-0001-6619-7588
Sanghee Choi
https://orcid.org/0000-0002-5864-813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신지원의 석사학위논문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한 민간사진기록 수집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2021)을 요약·수정된 것임.

초 록

도시의 변화를 포착하는 사진 기록은 지역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록이다. 국내에서는 7개 주요 도시(서울,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대구)에서 각 도시의 사진기록을 보관하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변화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을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부 공모전 사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오래된 사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광역시 변화를 포착한 중요한 사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증 절차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해 기증을 기반으로 한 사진 기록물의 수집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증 기반 사진기록물 수집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사진기록 기증 절차와 기증된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제안하였다.

ABSTRACT

Photographic records capturing the changes of a city are vital parts of local history archives. They were, however, not collected properly for the local history archives even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s a solution for this problem, seven major cities (Seoul, Incheon, Gwangju, Ulsan, Daejeon, Busan, and Daegu) initiated the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for archiving the photographic records of each c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and found that Daegu metropolitan city's project only holds some of the contest photos and a few old photos from the local government. A proper donating process is urgently needed to preserve valuable photographic records of Daegu, and this study aims solutions for the Daegu metropolitan city's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to improve the acquisition methods of photographic records. This study suggests the process for photographic records donation from citizens and a metadata set for donated photographs.

Keywords: 도시경관기록화사업, 민간기록, 사진기록, 기증, 사진메타데이터

The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private records, photographic records, donation, photograph meta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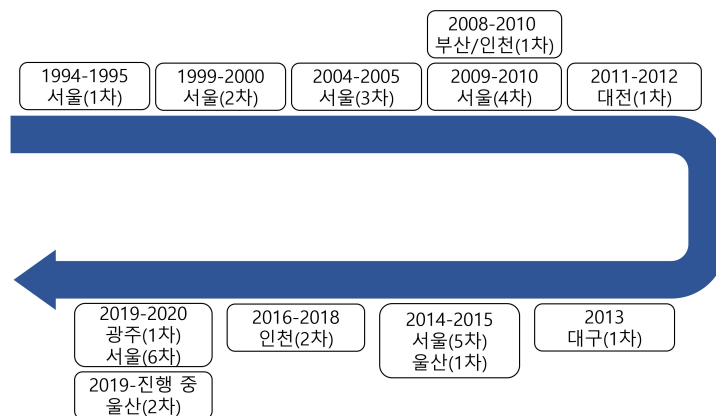
1. 서론

도시경관은 우리가 늘 겪는 일상적인 경관 유형으로서, 도시라는 공간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옥외 공간 같은 도시적인 시설과 숲과 물 같은 자연물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적 요소가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도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생활·분위기·이미지 등 시각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영역도 포함되며, 단지 미적 측면에서만 보이는 도시환경뿐 아니라 생활이 담긴 도시 전체의 종합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이고, 이런 면에서 도시의 문화를 나타낸다(이규목, 2002).

우리나라는 1960년대 시작된 양적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로 도시 기능 증진과 더불어 향상된 편익을 얻었지만,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경제수준의 향상 및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 고조로 경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져 2008년 경관법 제정을 시작으로 도시화, 산업화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적 역사적 경관자원들을 보존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경관계획을 시행하고, 「경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관 사업이 진행되었다.

경관이란 조망을 통해 파악되는 풍경이나 외관과 함께 자연환경이나 인공 시설 혹은 사회, 문화적 특색을 갖는 환경 등(건축학용어사전)을 일컬으며, 「경관법」에서는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시경관이란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요소와 인간에 의해 형성된 건물이나 구조물, 시설 등의 도시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전경(건축학용어사전)이라 일컫는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경관법」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6호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광역지자체에서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인 ‘경관조례’를 마련하여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시작하였다. 1995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2008), 울산광역시(2014)는 5년 주기로 진행 중이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는 1차 사업만 완료한 상태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역사

도시의 물리적·문화적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빠르게 도시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개발

이전의 모습이 잊혀질 수밖에 없고, 도시가 가지는 모습이 잊혀진다는 것은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도시경관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촬영하여 생산하는 것이 주된 방식인데 이 경우 특정 시간을 지정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도시의 다양한 모습이 담기지 못하며 또한 단발성으로 시행되고 사업이 중단되면 도시경관이 기록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라지고 있는 도시이미지 및 도시정체성 유지의 대안으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각 지자체별로 진행현황과 서비스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좁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도시의 경치와 그 시각적 모습을, 넓게는 우리의 오감에 의해 느껴지는 도시의 이미지나 시민 생활의 분위기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인 도시경관(한국경관협회, 2008)을 기록화하는 것이나 대구광역시는 도시경관 사진기록수집과 같은 기초적인 과정도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 수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이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특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주요 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주요 핵심 기록물인 사진기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진기록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민간사진기록물 중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의 수집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민간인증사진 수집·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지속적인 민간사진기록 수집을 위한 기증 공모전(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민간사진기록물을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에서 수집·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진기록물의 맥락 및 기초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민간사진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기존 사진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자와 이용자별로 제안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지자체는 7개 광역지자체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대구이며 용역보고서,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조사를 통해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세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사진 기능을 제공하는 사례조사를 위해 참여형 아카이브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진아카이브’, ‘새마을운동아카이브’, ‘4.16모으다’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사진메타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외사례로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진기록물 메타데이터 표준인 IPTC(Interna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s Council), 국제기술표준인 ISAD(G), 국내사례로는 국가기록원에서 활용되는 시청각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2.1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관한 연구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록관리의 범위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위주에서 민간기록물까지 확대되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남기록원, 서울기록원이 설립되었으며 대구, 경북, 전북, 경기 지역의 기록원 설립 추진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기록물관리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도 로컬리티에 많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기록물 수집이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생산 기록은 민간기록물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지역기록물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민간에서 생산·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록화를 위한 사진기록의 중요성 및 촬영기법을 다룬 연구가

다수였으며, 구체적인 기록화 방안으로써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다.

임성규(2017)는 현재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기록물의 생산·보존·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도시별 불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아닌 사진 다운로드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아카이브에 대한 질적 발전방안으로는 새로운 기록대상 및 분야의 확대, 변화가 빠른 대상에 대한 비정기적 기록화 작업의 필요성 제시, 도시민들의 생활상이 돋보이는 의미적 경관의 적극적인 촬영 및 기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 및 기록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생산기록물의 파악 및 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하승용과 이정수(2018)는 6대 특·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진행과정, 추진현황, 내용, 촬영기법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현재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인 만큼 지자체별로 다르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정례화의 필요성, 경관유형 정리 및 각 지자체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반영한 특정 경관 선정의 필요성, 촬영 방법 및 촬영 장비 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정 지역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정리한 연구로서 문희수의 연구(2014)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관련 경관 조례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 지역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다양한 조망점을 통한 도시경관 기록 시도, 이러한 기록들로 도시정체성 상기 및 사회적 통합 강화에 의의가 있으나 도시의 일상이미지를 보여주질 못한다는 점과 시민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다룬 전유정(2016)은 대구 도시경관 아카이브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옛 도시 및 시민들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사진의 수량이 적으며 시민 참여가 소극적이었던 점, 기록화 대상범위 설정의 명확성, 수집된 사진기록물의 후속 조치 미흡 등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도형과 민간자율형의 사례조사를 통해 대구시 도시경관 사진기록을 보완하여 진행하기 위한 기록화 범위 설정, 기록화 프로세스, 기록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과 수집의 병행 필요성,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방안으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이 보인다.

2.2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의 기록물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의 기록물에 관한 연구로는 민간기록물 중 지역기록물과 축제기록물에 대한 수집, 관리, 보존을 위한 협의회 및 위원회 설립, 기록관리와 활용방안을 다룬 연구가 다수였다. 고정서(2011)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의 역사·문화적 요소인 지역사를 연구하고 지역관련 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광산구사편찬위원회’에서 『광산구사』를 편찬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집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기록이 누락되거나 중복 수집의 문제,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 미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록물 수집정책 수립, 쉽고 정확한 기록물 검색을 위한 다중 분류체계 개발, 장기 보존 시설의 설립, 기록물관리 인원의 배치 및 기록물평가위원회의 필요성,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수집한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지역민들에게 기록물관리의 필요성과 민간기록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민성혜(2012) 연구에서는 광명시의 민관 협치 기구인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례 분석 및 본 협의회에서 제안한 광명시아카이브즈 설립 필요성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지역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광명시아카이브즈” 설립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광명시기록물 관리협의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진아(2013)는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행사기록에 대한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기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기록관리 미흡, 기록 보존기간 책정의 한계, 보존환경 및 시설의 부적절성, 기록 이용 및 접근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부산지역 축제기록관리 방안으로 제도적 측면으로는 기록관리 의무화, 기록관리 교육 실시, 부산광역시의 이관 노력의 방안을, 절차적 측면으로는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한 기록관리 체계구축, 아카이브 구축 등의 방안을, 활용적 측면으로는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 자료전시·출판을 통한 활용, 이용자의 참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카이브 2.0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3 사진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기록물 서비스 관점에서 사진기록물 또는 영상기록물은 종이기록물에 비하여 기록물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및 가독성 때문에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매우 높다(김용 외, 2009). 따라서, 사진 메타데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진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사진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및 표준 제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다수였다. 강영선 외(201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진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통일성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진을 등록할 때마다 한 건씩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인적 소모가 크고 해당 사진을 등록하는 공무원들에 따라 입력 규칙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진의 효율적인 검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과 국내 지자체 사진 홈페이지 저장방식을 분석하여 지자체에 적합한 사진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항목 설계를 제안하였다. 김자경과 최상희(2019)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사진을 중심으로 참여형축제 사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기관별로 축제 사진 메타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참여형사진아카이브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제시하였다.

김인아, 강영선, 이규철(2020)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기록물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 행정자료, 시청각물 등 다양한 기록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진 기록물 관리 방식에서 사진 기록물을 관리하는 표준 메타데이터 기준이 없어 다른 기관과의 사진 기록물 호환이 어렵다는 점, 담당자가 파일명을 기준으로 사진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에 따라 파일명 규칙이 달라진다는 점, 사진 기록물을 등록할 때마다 수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므로 시간적, 인적 소모가 발생한다는 점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외 사진 기록물 메타데이터와 수원시·군산시·서귀포시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자체 사진 기록물의 효율적인 저장·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3. 광역지자체별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현황분석

3.1 광역지자체별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현황 및 비교분석

조사대상이 된 지자체는 7개 광역지자체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대구이며 각 광역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법적 근거는 <표 1>과 같이 대부분 조례 수준이며 부산광역시 경우에만 시책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표 1〉 7개 광역지자체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법적 근거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추진 근거	1~4차 시책사업 5차~ 경관조례	경관조례	경관조례	경관조례	경관조례	시책사업	경관조례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장 먼저 시행하여 지속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으며 울산·인천광역시의 경우 2차, 3차 사업이 진행·완료 중이다. 서울특별시는 1995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6차 사업이 완료되었다(〈표 2〉 참조). 서울시의 서울경관 기록화사업을 살펴보면 5년 단위로 서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고 특징적인 시대상을 찾아 역사적 의미부여, 사라져 가거나 새로 등장한 모습을 포착하여 도시의 변천사 기록, 생산된 기록을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최근 완료한 6차 사업은 기존 시행한 1차~5차 사업과의 일관성 유지 및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시행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새로운 촬영기법인 드론촬영이 도입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록화 사진파일 5,000여컷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표 2〉 7개 광역지자체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현황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추진 회차	1차: 1994-1995년 2차: 1999-2000년 3차: 2004-2005년 4차: 2009-2010년 5차: 2014-2015년 6차: 2019-2020년	1차: 2008-2010년 2차: 2016-2018년 3차: 2021-	1차: 2019-2020년	1차: 2014-2015년 2차: 2019-	1차: 2011-2012년	시책사업: 2008-2010년	1차: 2013년
대상 선정 방법	선행사업검토 설문조사, 대중매체조사	도시경관보고서, 문헌조사, 신문·인터넷조사, 설문조사, 현장답사	도시경관계획보고서, 언론, 인터넷 축제, 행사 등	도시경관보고서, 개발사업, 지역언론, 블로그, 공모전 등	도시경관 보고서, 개발사업	객관적 체계	도시구조적 측면, 도시변화적 측면, 도시활동적 측면과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선정
주요 사진 내용	일반경관(도시이미지, 구조, 생활, 진화, 역사)과 표준경관 구분	도시경관계획 주요지점, 인천대표지점, 문화유산, 변화예상지역	일반경관(농촌, 문화, 계획, 역사, 도시기반시설, 자연, 지역상징, 시가지)	과거, 현재, 미래, 시민	경관구조, 경관관리, 경관변화, 문화 등	부산의 기억, 구조, 삶, 데자뷰, 꿈	대구광역시 경관 52선 등
활용	화보집, 전시회, DB구축, 홈페이지	화보집, 전시회, DB구축, 홈페이지	화보집, DB구축, 홈페이지	화보집, 전시회, DB구축, 홈페이지	화보집, DB구축	화보집, 전시회, DB구축	화보집, DB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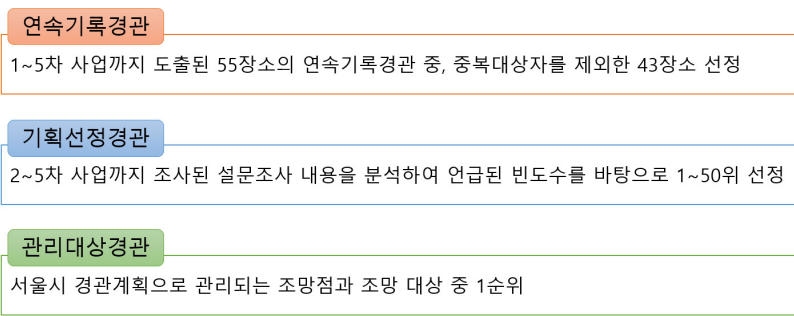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2010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변화하는 인천의 경관을 주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다양한 시대상과 도시경관 변천사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도시경관을 위한 정책자료와 생산 기록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도시경관 가치를 공감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는 2014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196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 아래 급성장해 온 울산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살아 숨쉬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외 타 광역지자체는 1차 사업만 진행한 상태이며 그 중 부산광역시는 시책사업으로 단편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해당한다. 이중 광주광역시는 가장 최근에 1차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로서 광주의 주요경관 자원(장소)의 과거 모습을 수집하고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하여 2019년에 7월에 시작으로 2020년 11월까지 1차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향후 2차사업을 지속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수집하는 대상 사진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일반경관과 표준기록경관으로 나누어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일반경관은 도시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이미지 경관, 도시구조 경관,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표준기록경관은 <그림 2>와 같이 도시의 형태 및 시민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장소 중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경관변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2> 서울특별시 표준기록경관 선정방법

인천광역시는 2차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서 대표경관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조사, 신문기사 조사, 블로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도출된 기록경관대상에 대하여 총 3차 설문조사를 하여 대표경관을 선정하였다. 울산광역시도 경관성, 이미지성, 가치성의 선정기준에 맞춰 사진기록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2008-2009년이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도시경관 사진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도시경관 사진을 입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다른 광역시에서도 단발성 사업형태로 사진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웹으로 서비스하는 현황도 각 광역지자체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표 3>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결과물로 아카이브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아카이브가 현재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았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별도의 웹페이지가 아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진 수집을 위하여 민간인이 사진을 제출할 수 있는 수집 플랫폼은 7개 광역지자체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3>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아카이브 및 민간사진수집 플랫폼 비교 분석

구분	아카이브 웹페이지	민간사진 수집 플랫폼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웹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5개 광역지자체의 기록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큰 격차가 있었고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사진 기록물 보유량이 현격하게 낮아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으로 사진수집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표 4>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기록물 보유량 비교 분석

구분	사진기록물 보유량
서울특별시	약 30,000
인천광역시	12,000
울산광역시	21,778
광주광역시	2,787
대구광역시	487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보존할 사진기록물 대상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보고서·언론·행사 등의 자료를 통한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민간사진수집은 공모전, 블로그를 통한 수집편임을 알 수 있다. 광역지자체별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으로 수집된 주요 사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적인 도시경관임을 알 수 있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경관의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만큼 다양한 사진기록물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통해 도시의 시대상·사회상·문화상을 나타내는 역사적 기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일반 경관부터 일반 시민의 생활상이 담긴 경관, 특정 사건과 행사와 관련된 사진기록물까지 다양한 요소의 사진기록물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민간 사진을 수집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처럼 사진기록물의 양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도시경관 기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5>에서 나타난 사진 촬영방법을 살펴보면 촬영된 사진들이 도시경관을 적절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 6개 광역지자체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촬영방법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촬영 방법	아이레벨촬영 항공촬영	아이레벨촬영 헬기촬영	항공(드론)촬영 VR촬영	위킹뷰 촬영 드론 촬영	아이레벨촬영 항공촬영 크레인 촬영	아이레벨촬영 항공촬영 해상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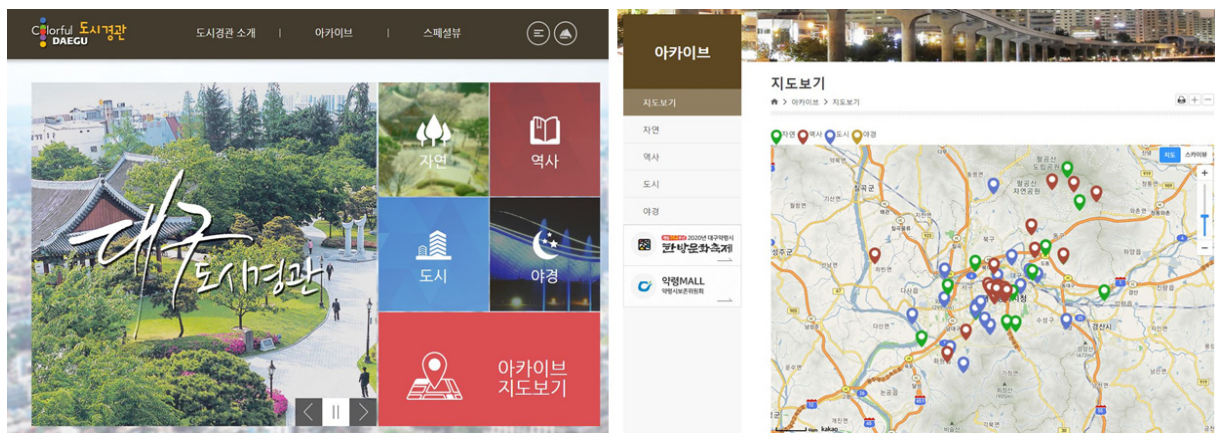
위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카메라 렌즈를 피사체의 눈높이에 맞추어 촬영하는 ‘아이레벨촬영’ 및 항공·헬기·드론촬영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항공촬영과 VR 촬영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기록대상의 촬영 시 촬영팀을 구성하여 진행한 경우, 해당 도시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단발성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사진기록물은 다양한 시점과 시간대에서 여러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을 수집해야 도시경관의 변화 모습을 다각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다양하게 촬영한 사진을 수집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3.2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현황은 대구경북연구원의 학술용역보고서 및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 웹페

이지를 기반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대구광역시시는 지난 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도시의 고유한 지역성 및 도시경관의 매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살기좋은 도시이미지를 갖고자 2013년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공공디자인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1차 사업이 진행되었다.

1차 사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화보집을 제작하였고 도시정책입안의 기본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에 활용하고자 DB를 구축하여 <그림 3>과 같이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는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경관 52선 또는 공모전을 바탕으로 수집된 사진을 자연·역사·도시·야경의 4가지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된 사진을 별도의 신청없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위치별 자료 검색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페셜뷰를 통해 경관 52선 및 공모전 사진화보집과 1900년대 대구시 옛날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 웹페이지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기록물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역사가 주제인 사진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이 139건, 도시가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진기록물 양이 적은 이유로 사진의 주제도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도시경관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 사진기록물 수

주제	사진기록물 수
역사	185
자연	139
도시	115
야경	48
옛 사진	31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대상 선정기준과 방법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도시구조적 측면, 도시변화적 측면, 도시활동적 측면에 의미가 있거나 시민의식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사진기록물이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7〉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기록대상 선정방향

도시구조적 측면	•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조망지점 및 조망관리구역 등
도시변화적 측면	• 대규모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도시외곽지 개발지역 등
도시활동적 측면	• 도시축제 등의 도시이벤트 및 특징적 일상적 도시생활 공간
시민의식조사	• 대구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생산·촬영한 사진기록물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수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6개 광역지자체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3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는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진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국제보상운동, 3.1운동 등 지속적인 항일 투쟁 지역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유스티노신학교, 성직자모역, 성모당 등의 천주교의 성지, 제일교회 및 동산언덕 일대의 기독교의 성지, 팔공산·동화사 등의 불교의 성지로 불릴만한 종교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는데 현재 수집한 사진기록물 양으로는 역사적 가치있는 도시경관 사진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두 번째,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에 보여지는 사진기록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항목이 매우 부족하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사진 메타데이터와 비교하면 서울특별시는 제목, 촬영장소, 촬영시기, 코드번호, 컬렉션, 출처, 촬영지점 방향 등 최소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메타데이터가 7개인데 반해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는 제목, 사이즈, 소개, 위치 등에 불과하다. 특히 소개와 위치 메타데이터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그나마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도 중복되고 있다. 세 번째, 민간사진기록물 수집방안의 하나인 기증을 위한 체제가 미흡하다.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는 자연/역사/도시/야경 4가지 주제의 사진과 스페셜뷰를 통한 경관 52선, 공모전 화보집 및 옛 사진을 제공할 뿐, 수집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진기록물의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진기록물 수집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4.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물 수집 활성화 방안

4.1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물 기증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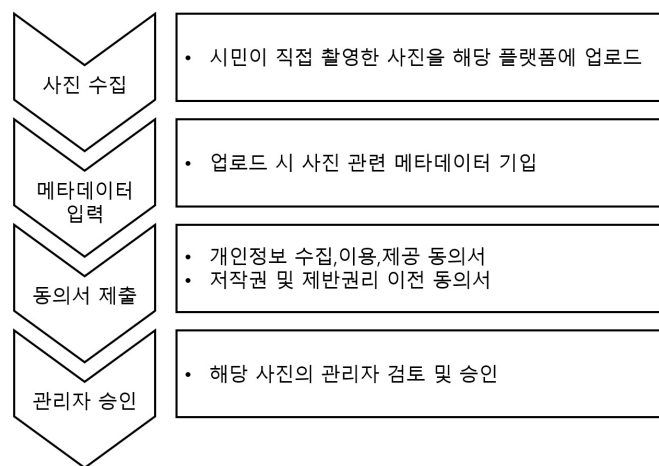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진기록물 수집방안을 도출하고자 민간기록 참여형 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 방법 및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사한 민간기록 참여형 아카이브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 ‘(사)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진아카이브’,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4.16 모으다’ 인데 이 아카이브들은 민간사진기록물을 주요 기록물로 수집 보존하는 사례이다.

〈표 8〉을 살펴보면 5개 사례의 공통적인 사진 수집방법은 기증이었다. 민간기록 주요 수집방법은 개인/기관/단체 등으로부터의 기증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서도 민간사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촬영, 생산하는 방법 외에도 시민들의 참여로 인한 기증이 중요한 수집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사진기록물을 소지한 민간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진을 기증할 수 있도록 민간사진 기록물 수집을 위한 이용자 및 관리자의 사진 수집·처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민간사진 기증 플랫폼을 구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기초프로세스이다.

<표 8> 민간기록 참여형 아카이브 수집 방법 비교

민간기록 참여형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방법
인간과지역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디지털사본 포함) • 위탁/기탁 • 타 기관과의 자료공유 • 구입
오픈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개인/기관/단체)
(사)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진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 • 위탁 • 임대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 • 제보
4.16 모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 •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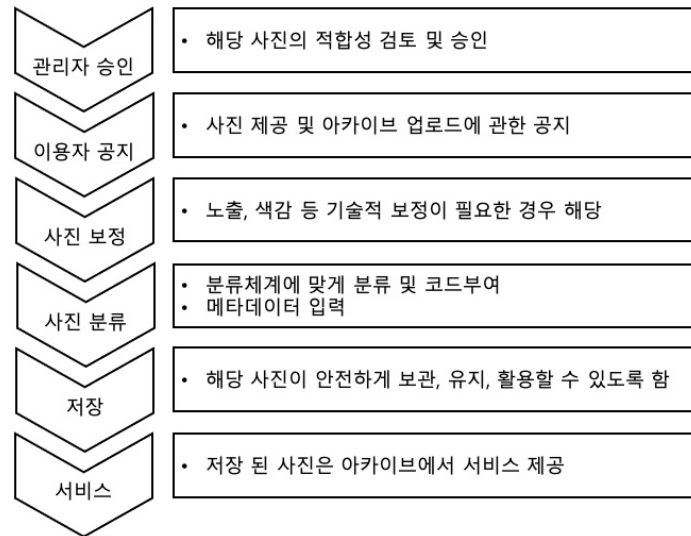
첫째, 이용자가 직접 사진을 기증하는 민간 사진기록물 수집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민간 사진기록물 기증 프로세스

시민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스캔한 사진을 해당 플랫폼에 업로드 시 제공하는 사진과 관련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데이터는 다음 장에서 이용자와 관리자별로 나누어 작성, 관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기증 과정에서 사진 제공과 관련된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하는데, 동의서는 제공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제공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과 제반권리 이전 동의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해당 사진이 경관기록에 적합한지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둘째, 민간 사진기록물 기증을 위한 관리자플랫폼 프로세스 흐름도는 <그림 5>와 같다. 시민이 신청한 사진기록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사진을 기증한 시민에게 사진 제공 및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 업로드에 대한 공지를 한다. 이후 노출, 색감 등의 기술적 보정이 필요한 경우 사진 보정을 하며, 해당 사진의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및 코드를 부여한다. 이후 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입력을 하고 해당 사진이 아카이브에 안전하게 보관, 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 수집된 민간사진 처리 프로세스

추가적으로 민간 사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진 공모전이 있다. 대구광역시 2013년, 2015년 2차례에 걸친 대구경관사진 전국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더 이상의 공모전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 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기증 공모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증 공모전(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간기록물 공모전, 캠페인을 조사·분석하였다(<표 9> 참조).

〈표 9〉 민간기록물 공모전·캠페인 비교분석

민간기록물 공모전·캠페인	공모대상	응모방법
(사)경북기록문화연구원 옛 사진 공모전 '좋은 날'	1990년대 이전에 안동에서 촬영된 사진 (건축물, 풍경, 거리,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	•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 접수
증평 옛사진 공모전 '그때, 그리고 지금'	2000년 이전 증평 사진	• 증평기록관 앞 우체통 접수 • 증평기록단 카카오톡 채널 혹은 전화 접수
역.시.하.남. 역사기록 시민의 하루를 남기자	하남시의 옛 사진	• 방문/우편 접수
함께해요! 괴산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괴산군과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	•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나의 기록으로 익산의 어제와 오늘을 잇다'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익산시와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취득한 모든 형태의 자료	• 온라인 접수 • 방문/전화 접수
대구 북구! 기록의 소환 옛사진 공모전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 이어진 북구의 발전상, 변화, 생활상 등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빛바랜 사진, 구겨진 사진 모두 대상으로 함	• 방문/우편 접수
행복수성 전국사진공모전	• 수성구의 자연경관 및 생태 • 수성구 주요 행사 모습 • 수성구 소재 문화유산, 문화·체육시설 • 자연과 사람, 수성구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 방문/우편 접수

민간기록물 공모전·캠페인에서의 공모대상은 지역의 변화상·생활상을 보여주는 현재와 과거 원본 사진을 수집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북구, 수성구에서는 지속해서 구 단위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구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사진공모전을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하남시의 사례나 괴산군의 사례처럼 지역적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 사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할 것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앞에서 제시한 민간사진 기증 프로세스를 따라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되는 민간 사진기록물과 동일 메타데이터를 적용하고 이후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 사진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 사진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하여 <표 10>에서와 같이 웹으로 사진이 서비스되고 있는 5개 광역자치체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조사하였다. 해당 사진기록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인 메타데이터 항목은 기본적인 요소인 ‘제목’, ‘촬영장소’, ‘설명’만 제공할 뿐, 전체적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이 풍부하게 기술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사진크기와 작성자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있으나 실제 내용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로 표시하였다.

<표 10>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비교 분석

구분	사진정보요소						사진정보 외 입력정보요소					
	제목	촬영자	촬영장소	촬영일자	사진설명	사진크기	코드번호	컬렉션	작성자	협조기관	사업회차	해시태그
서울특별시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핵심 사진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자 <표 10>에서 분석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기록물 메타데이터를 국내외 사진기록물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IPTC 사진 메타데이터 표준, ISAD(G), 국가기록원 사진기록물 메타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IPTC 사진 메타데이터 표준은 뉴스 기관, 사진작가, 사진 기관,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관련 산업의 보편적인 수용으로 인해 사진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이다. IPTC 표준은 원본 IPTC-IIM의 레거시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뉴스와 스톡 사진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용으로 IPTC 코어와 IPTC 확장이라는 두 가지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IPTC 코어 및 확장 스키마 1.2 메타데이터 항목을 참조하였다.

ISAD(G)는 기록물의 매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록의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으로 7개의 기술사항과 26개의 기술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26개의 기술요소를 참조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발간한 처리과 및 기록관의 관리지침은 총 54개의 국가기록원 시청각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기록물 메타데이터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항목들이 사진 기록물만이 아닌 시청각 기록물을 다룬 요소이므로 사진의 기본정보를 나타내는 ‘제목’, ‘내용’, ‘사진 파일 사이즈’,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와 기술요소에 해당하는 ‘사진 ID’, ‘생성자’, ‘수정자’, ‘삭제자’, ‘생성시각’, ‘수정시각’, ‘삭제시각’을 참조하였다.

메타데이터 매핑을 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면(<표 11> 참조), IPTC,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4개 표준에 모두 포함된 메타데이터 항목은 ‘제목’, ‘코드번호’, ‘사진설명’ 3개이며, 3개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항목은 ‘해시태그’, ‘촬영일자’, ‘사진크기’, ‘촬영자명’으로 4개가 해당되며, 2개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항목은 ‘촬영장소’, ‘촬영위치’, ‘촬영 구’, ‘출처’, ‘저작권’, ‘파일명’, ‘파일 사이즈’, ‘기술자’, ‘기술일자’로 9개가 해당된다.

<표 11> 국·내외 및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 메타데이터 비교분석

항목 \ 표준	IPTC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제목	Title*	Title	제목	제목
코드번호	Code of Organisation Featured in the Image	Reference code(s)	사진 ID	코드번호
사진설명	Description	Scope and content	내용	사진설명
해시태그	Keywords	Scope and content	×	태그
촬영일자	Date Created	Date(s)	×	촬영일자
사진크기	×	Extent and medium the unit of description (quantity, bulk, or size)	가로 사이즈	사진크기
	×	Extent and medium the unit of description (quantity, bulk, or size)	세로 사이즈	사진크기
촬영자명	Creator	Name of creator(s)	×	촬영자
촬영장소	Sublocation	×	×	촬영장소
촬영위치	Location Shown in the Image	×	×	촬영위치
촬영 구	Province or State	×	×	촬영 구
출처	×	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or transfer	×	출처
저작권	Copyright Notice	×	×	저작권
파일명	×	×	사진 파일명	파일명
파일 사이즈	×	×	사진 파일 사이즈	파일 사이즈
기술자	×	Archivist's Note	생성/수정/삭제자	×
기술일자	×	Date(s) of descriptions	생성/수정/삭제시각	×

* 해당 메타데이터 표준에 표기된 항목명

이 연구에서는 4개 표준에 모두 포함된 메타데이터 항목은 핵심 메타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메타데이터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여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ISAD 항목 중 열람조건, 사본조건, 언어는 사진기증과정에서 사진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제안하는 메타데이터는 민간 사진기록물 기증 프로세스에 따라 이용자별, 관리자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용자용 메타데이터를 위해 8개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입력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촬영자’와 ‘기증자’가 항상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증자명’의 항목도 포함하였다. 또한 ‘파일명’, ‘파일 사이즈’, ‘사진크기’, ‘샷’, ‘ISO’, ‘장치’는 사진 촬영 시 해당 사진의 정보에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용자가 제공하는 사진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에 관리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2〉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기증사진 메타데이터 항목(안)

구분	메타데이터 항목	메타데이터 설명	필수/선택사항	자동/수동 추출	출처
이용자용	제목*	사진 이름	필수	수동	IPTC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설명*	사진에 대한 설명	필수	수동	IPTC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해시태그*	사진에 대한 키워드	필수	수동	IPTC ISAD(G)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촬영일자*	사진 촬영날짜	필수	수동	IPTC ISAD(G)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촬영자명*	촬영자 이름	필수	자동/수동	IPTC ISAD(G)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촬영장소*	사진 촬영장소	필수	자동/수동	IPTC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촬영 구*	사진 촬영 군/구/동	필수	자동/수동	IPTC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기증자명*	기증자 이름	필수	수동	-
	사진크기	사진 가로/세로 사이즈	선택	자동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파일명	사진 파일 이름	선택	자동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파일 사이즈	사진 파일 크기	선택	자동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샷	- 사진 셔터 속도 - 조리개값 - 화각	선택	자동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ISO	센서 감도	선택	자동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장치	촬영 카메라 모델	선택	자동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관리자용	코드번호*	사진기록물 고유번호	필수	자동	IPTC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촬영위치	사진 촬영위치	필수	수동	IPTC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출처	사진에 대한 출처	필수	자동/수동	ISAD(G)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저작권	사진에 대한 저작권	필수	자동/수동	IPTC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기술자	사진 등록자(담당자)	필수	자동	ISAD(G) 국가기록원
	기술일자	사진 등록 일자	필수	자동	ISAD(G) 국가기록원
	협조기관	항공/드론 사진 촬영 시 협조기관	선택	수동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컬렉션	사진이 속한 컬렉션/카테고리	필수	수동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업회차	사진이 생산된 사업회차	필수	수동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열람조건	사진의 접근조건	필수	수동	ISAD(G)
	사본조건	사진의 사본조건	필수	수동	ISAD(G)
언어	제목이나 설명문의 언어	필수	자동	ISA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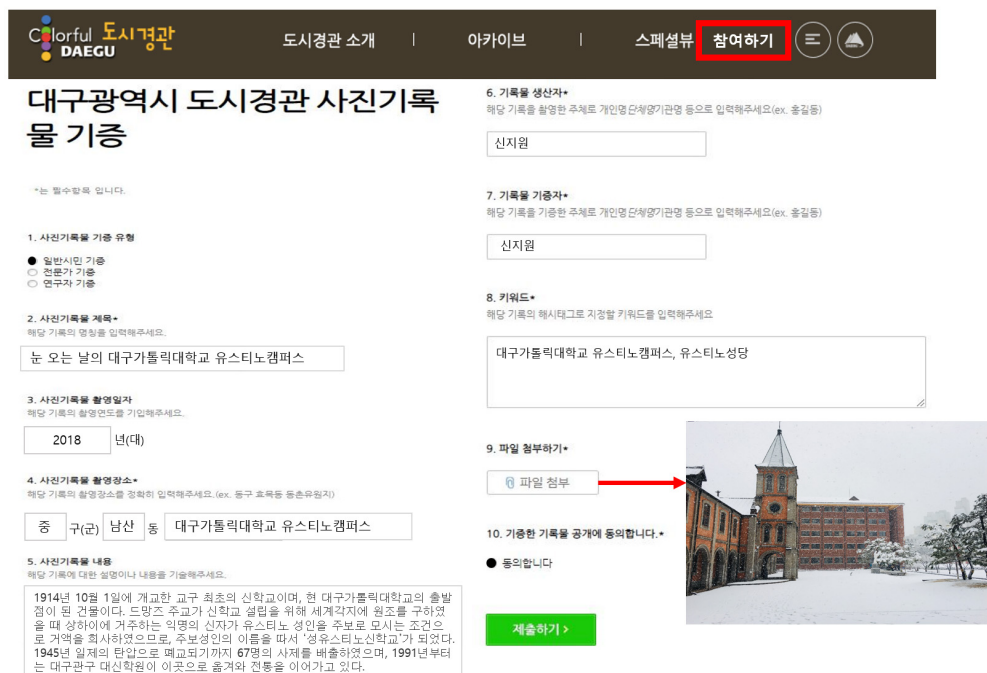
* 필수입력사항

관리자용 메타데이터를 설명하면 ‘코드번호’는 업로드 된 이용자 사진의 보정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해당 사진의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입력하도록 하며, ‘촬영위치’는 업로드 된 이용자 사진의 촬영장소를 바탕으로 지도에서 GPS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출처’ 및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가 입력한 촬영자명이나 기증자명을 바탕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기술자’ 및 ‘기술일자’의 경우, 업로드된 이용자 사진의 보정 및 분류부터 메타데이터 입력 및 수정,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자 이름 및 일자를 입력하며, 수정/삭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였다.

‘컬렉션’ 및 ‘사업회차’는 연속성으로 진행되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분류체계와 사업회차에 따른 구분을 나타내며, ‘협조기관’은 항공/드론 촬영 시 해당 기관의 협조가 필히 필요하므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열람조건’, ‘사본조건’은 사진의 열람 및 이용, 공개 및 비공개, 2차 저작물 활용 조건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언어’는 한국어의 비중이 높으나, 사진의 제목이나 설명문이 외국어로 입력되는 경우나 역사적 사료가 높은 재외 한국인들이 생산한 사진 등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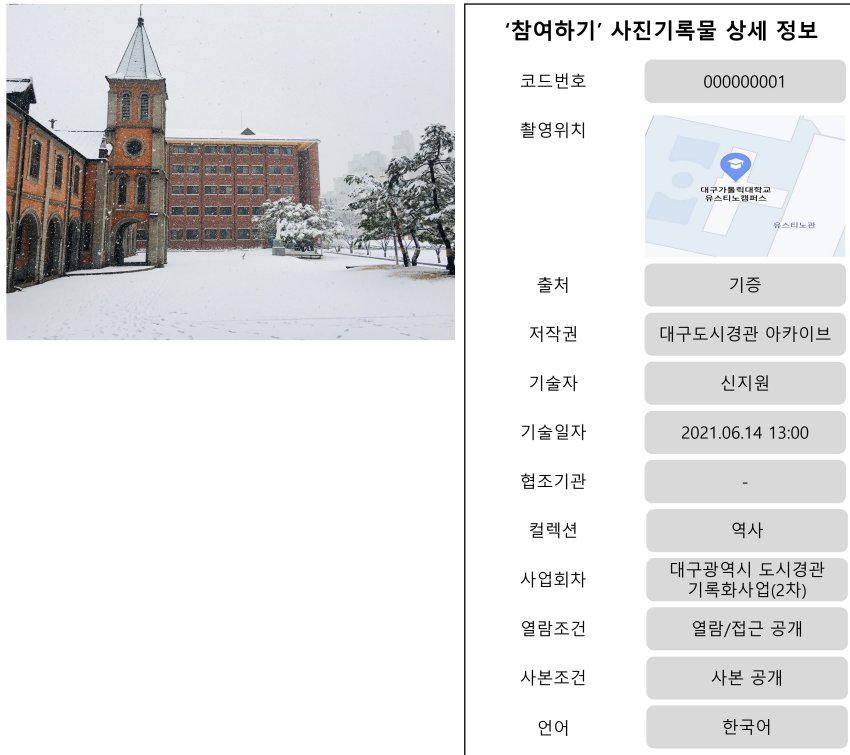
4.3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의 민간사진기록 기증안

4.2 장에서 도출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의 시민 참여형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민간사진 기록을 기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 플랫폼(안)을 <그림 6>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6> 대구도시경관 사진기록 기증 웹페이지(안)

이용자가 위와 같이 소장한 사진을 기증하고 나면 관리자는 관리자용 웹페이지에서 기증한 사진을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관리자용 메타데이터 항목에 맞추어 추가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관리자용 화면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7>과 같이 이용자가 기증한 사진에 대하여 관리자용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최종 확인이 되면 사진을 아카이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화면을 구성하였다.



〈그림 7〉 대구도시경관 이용자 기증 사진 등록을 위한 관리자용 웹페이지(안)

5. 결론

이 연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7개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울산, 광주, 부산, 대전, 대구)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진행현황, 사진기록물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수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진기록물이 많은 지역이지만 다양한 주제로 사진이 수집되고 있지 않았으며 도시경관 기록물사업에 축적된 사진량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진기록물이 소멸되기 전에 이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사진기록물은 해당 사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부족하다.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에서는 사진 제목·사이즈·소개·위치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기록물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메타데이터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대구도시경관 아카이브는 민간사진기록물 수집방안의 하나인 기증을 위한 수집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높은 민간사진기록물의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적은 사진기록물 보유량의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고 민간사진기록물 수집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민간사진기록수집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민간기록 참여형 아카이브 플랫폼의 기록물 수집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 사진수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용자·관리자별로 구분하여 민간사진기록 수집·처리 프로세스(안)를 제시하고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정기적·연속적인 사진수집을 위한 기증 공모전(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진 메타데이터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이용자·관리자별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사진 메타데이터 항목(안)을 이용자용 14개, 관리자용 12개로 총 26개 메타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이용자용 메타데이터 중 4개 표준(IPTC, ISAD(G), 국가기록원,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모두 포함된 3개의 메타데이터 항목(제목, 사진설명)과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메타데이터 항목(해시태그, 촬영일자, 촬영자명, 촬영장소, 촬영 구), 기증자명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기증받은 사진의 정보에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파일명, 파일 사이즈, 사진크기, 샷, ISO, 장치)은 선택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관리자용 메타데이터는 이용자 사진의 보정·분류 작업 이후 입력하는 것으로 사진의 세부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항목(코드번호, 촬영위치, 출처, 저작권, 협조기관, 컬렉션, 사업회차, 언어), 해당 사진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 등록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항목(기술자, 기술일자), 사진의 접근·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항목(열람조건, 사본조건)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사진기록물을 수집할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현재 7개 광역지자체 모두 민간 사진기록물 수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대구광역시만 한정 지어 다루었다는 것과 수집한 민간사진 기록물의 보존·활용 및 서비스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데에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를 계기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시행 중 또는 계획 중인 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사진기록물 수집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영선, 김인아, 김성학, 이규철 (2018).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의 효율적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한국정보과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5(2), 189-191.
- 고정서 (2011). 지방지 편찬 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광산구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김용, 최지현, 서진원, 강혜영 (2009). 광역자치단체의 영상기록물 DB 구축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197-219.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1.197>
- 김인아, 강영선, 이규철 (2020). 국내 지자체 사진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및 기계학습 기반 자동 인덱싱 방법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20(2), 67-83.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067>
- 김자경, 최상희 (2019). 참여형축제사진아카이브구축 방안 연구: 대구시 축제기록 사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49-70.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49>
- 문희수 (2014).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의 사진기록물에 관한 연구. 인천, 대전광역시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민성혜 (2012). 광명시의 민간기록물관리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협의회 설립 방안 연구.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규목 (2002). 한국의 도시경관: 우리 도시의 모습, 그 변천·이론전망. 서울: 열화당.
- 이진아 (2013). 부산지역 축제기록 관리와 활용방안.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임성규 (2017).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전유정 (2016). 대구의 도시정체성 보존을 위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하승용, 이정수 (2018). 6대 특·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기록화 체계 및 방법 비교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6), 769-784
한국경관협회의회 (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서울: 보문당.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 Seung Yong & Lee, Jeong Soo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and Methodology of Cityscape Records and Archives in 6 Metropolitan Citie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9(6), 769-784.
- Im, Sung Kyu (2017). A Study on the Project to Documentation the Urban Landscape. Myongji University, Korea.
- Jeon, You Jeong (2016). A Study on Photography Documentation of Urban Landscape for Preservation of Urban Identity of Daegu-s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ang, Young-Sun, Kim, InA, Kim, Seong Hak, & Lee, Kyu-Chul (2018). Metadata Design for Efficient Searching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hotographs.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Proceedings*, 45(2), 189-191.
- Kim, InA, Kang, Young-Sun, & Lee, Kyu-Chul (2020). Metadata Design and Machine Learning-Based Automatic Indexing for Efficient Data Management of Image Archiv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2), 67-83.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067>
- Kim, Ja-Gyung & Choi, Sanghee (2019).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Archive Model: Daegu Festival Photograph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3), 49-70.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49>
- Kim, Yong, Choi, Ji-Hyun, Suh, Jin-Won, & Kang, Hye-Young (2009). A Study on Improvement Plan and Case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age Record DB in a Provincial Off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197-219.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1.197>
- Ko, Jeong Seo (2011). The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The Loc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 Korean Lanscape Concile (2008). *Landscape Act and Landscape Planning*. Seoul: Bomoondang
- Lee, Jin-A (2013). The Study on Managing and Using Records of Local Festivals in Busan: A case study on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Busan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Silla University, Korea.
- Lee, Kyu Mok (2002). *Modern Korean Townscape*. Seoul: Youlhwadang.
- Min, Seong Hye (2012). A Study on a Method to Establish the Local Archives Management Council in the Gwangmyeong City -Focusing on the Council of Green Gwangmyeong 21-. Master's thesis, Hanki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Moon, Hee Su (2014). A Study on Photographic Records of The Urban Landscape Photography Documenting Project: Focusing on Urban Landscape Photography Documenting Project in Incheon, Daejeon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Hanki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